

「베트남 하노이 장애인의 「당사자성」에 관한 문제점」

리츠메이칸대학대학원 첨단종합학술연구과 곤도 마유미(権藤真由美) Gondo mayumi
번역: 임덕영

1. 보고개요

목적: 베트남 장애인 지원 형태는 전쟁이 끝난 후 외부로부터 주목을 받아온 장애아 교육지원에 영향을 받아 왔다. 이번 보고에서는 하노이 IL센터의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된 경위를 통해 당사자의 「당사자성」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인터뷰조사: 2013년 11월 27일부터 2013년 12월6일까지(하노이IL센터 대표 Nguyễn Hồng Hà 씨/VNAH/사회보호국실장)
- 문헌분석

2. 배경

베트남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일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발원조의 흐름에서 논한 연구가 다수를 이룬다. 대표적 연구로 에사키치 사토(江崎智里)·츠도메 마사토시(津留正敏)·후지모토 분로(藤本文郎), 후지모토 카츠라 료타로(藤本・桂良太郎)·코니시 유키(小西由紀)편 이 있다. 베트남 정부계 문서는 소수 있지만, 장애인 복지를 주요 축으로 다룬 연구가 많지는 않다(테라모토 미노루(寺本実), 2010). 장애인이 아닌, 장애아 교육에 대해서는 후지모토 편(1997), 쿠로다 마나부(黒田学 2006)에 현황과 과제가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1981년 국제 장애인의 해에 후지모토 분로가 베트남에서 장애아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후지모토 씨를 중심으로 1985년 설립된 「베트남 베클레 발달을 지원하는 모임」이 일본에서 널리 소개됨으로써 고업제로 인해 다이옥신 피해를 입은 아동들에 대한 보장 혹은 교육과 원조 체제에 대해 언급되어 왔다. 개발원조 연구는 국제적 원조를 통한 효과적 지원 형성에 관한 것이 중심이며, 장애인 운동, 장애인 정책의 구조나 장애인 생활보장 등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의미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으며, 「비참」한 다이옥신 피해를 받은 아동들의 모습만이 클로즈업되었다.



사진(위): 2005년 베트남 평화·우호마을

사진(밑): 2004년 하노이 평화마을

3. 「당사자성」에 대한 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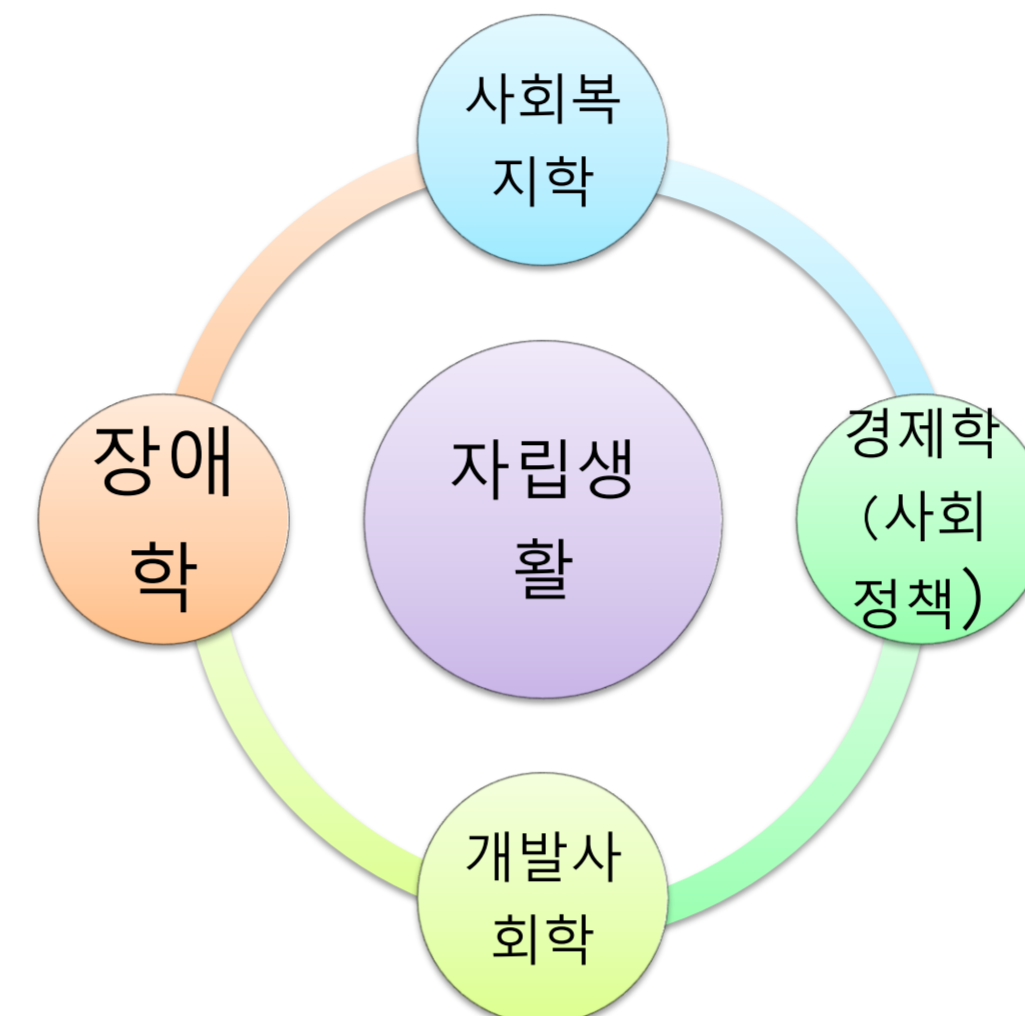
- 하노이IL센터 대표 Nguyễn Hồng Hà 씨
- 1997년 국제장애인 여성 포럼 참가
 - 1998년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 제6회 회합 참가
 - 1999년 세계 IL회담⇒자립생활운동(IL운동)을 접하게 되었으며, 자립생활센터 설립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 하노이IL센터 사무국장 Nguyễn Bích Thủy 씨
- 2008년 DPI/AP(장애인 인터내셔널 아시아 태평양사무국, 이하 DPI/AP)가 열었던 회의에서 BF 멤버로 참가, IL이념에 공감

4. 벗어나지 못하는 의학 모델

「CBR은 직업훈련이나 생활기술훈련 등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재활 중심이며, 장애인 권리나 생활을 중시하고 있지 않다. 자립생활 지원은 하고 있지 않으며, 실행 단체에 장애인은 없다. 행정 측은 CBR 실시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호바 코헤이(堀場浩平)2013)⇒장애가 있는 장애인 의견은 반영되기 힘들다. 재활이 최선책이라 여겨지며, 장애인은 가족 케어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라고 위치짓고 있으며, 장애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CBR(Community-Based Rehabilitation)⇒「장애인 자신, 가족, 조직이나 지역사회, 그리고 보건, 교육, 직업, 사회 혹은 그 외의 사회에 관여하는 정부와 비정부조직의 연계협력을 통해 수행된다」고 정의되고 있다(쿠노(久野)2008)



일본 재단의 지원을 통해 베트남 장애인과 일본 장애인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장애학」이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연구자나 학생들에게도 학문영역으로서는 인식되고 있지 않다.

4. 당사자 활동

- 하노이 IL 센터 동료 카운셀링, 자립생활프로그램, 개조서비스, 자립생활예산에 관한 요망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등의 활동



사진(왼쪽) 하노이IL센터 1일 여행



사진(오른쪽) 하노이 IL 센터 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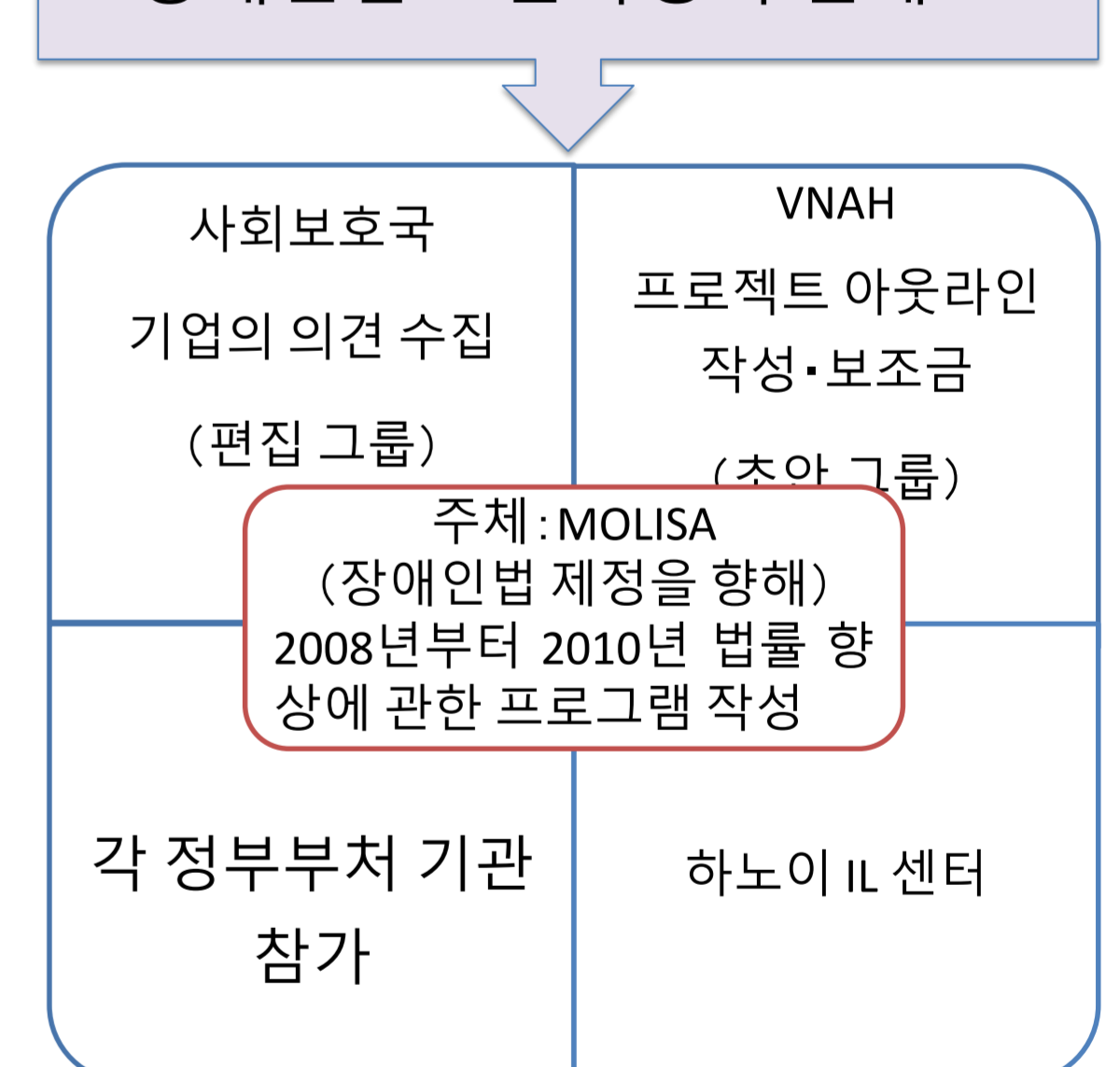
「장애인법」제정을 향하여 (2011년 제정)

• VNAH (Viet-Nam Assistance for the Handicapped) 베트남 장애인 협회. NGO단체로 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초안작성에 참가.

• 사회보호국 사회정책실 장애인 법 초안을 작성할 때 편집 그룹으로서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지금까지의 법령에서 발생된 장애인 문제나 법개정 후에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는 과제, 장애인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하였다.

MOLISA⇒ (Ministry of Labor, Wa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노동사회보훈부)

장애인법 초안작성시 연계도



하노이IL센터 멤버와 센터 설립에 관여했던 JIL의 나카니시 쇼지(中西正司)씨, MOLISA 부장관의 협력으로 「장애인법」에 「자립생활」이라는 문구가 삽입되었다.

5. 문제점

최근까지 장애인 지원의 형식은 공급자 관점⇒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이 발전도상국이라 불리는 국가에 대한 원조를 통해, 장애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발원조를 통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급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인가, 와 같은 공급자 관점에 한정되어 장애인의 「당사자성」이 논의되지 않았다.

「장애학」의 선행연구들이 밝혀온 바와 같이, 당사자가 타자의 지원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구조를 당사자가 만들어낸다 ⇒장애인을 둘러싼 제도설계 운용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점이다.

참고문헌(일본어→한국어): ◆에사키 치사토(江崎智里)·츠도메 마사토시(津留正敏)·후지모토 분로(藤本文郎)(2009)『베트남이 가르쳐준 것』, 크리에이츠 카모가와. ◆후지모토 분로 편(1997)『베트남 도쿠짱 만이 아니라—일본-베트남 11년간 국제교류 레포트』문리각(文理閣). ◆후지모토 분로·가츠라 료타로(桂良太郎)·코니시 유키(小西由紀)편(2010)『베트남과 일본의 유대』신일본출판사. ◆쿠노 겐지(久野研二)(2008)『CBR: 실천에서의 가능성과 과제—말레이시아 사례연구』, 모리 소야(森莊也)편『장애와 개발—도상국의 장애당사자와 사회』JIDE-JETRO아시아경제연구소. ◆쿠로다 마나부(黒田学)(2006)『베트남 장애인과 발달보장—장애인과 복지·복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문리각. ◆호리바 코헤이(堀場浩平)(2013)『개발도상국의 장애인 임파워먼트 하이노 자립생활센터 사례분석』, 일본복지대학대학원 국제사회개발연구과. ◆테라모토 미노루(寺本実)(2010)『베트남 장애인의 생계—외부원조의 관계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한 고찰』모리소야(森莊也)편『도상국 장애인의 빈곤속삭임』이나미서점(岩波書店).